

중앙아메리카 이민의 경향과 특성

임상래*

<Abstracto>

En la actualidad se dan varios cambios en la migración centroamericana entre los cuales se destacan la disminución de la movilidad transfronteriza entre los países centroamericanos y la incrementación de la emigración hacia fuera, sobre todo a los EE.UU.

Por lo tanto es necesario que la sociedad civil centroamericana tome conciencia de que la Región se ha transformado en expulsora de población y que es necesario evaluar los efectos positivos y negativos de este nuevo patrón.

El principal desafío para que los centroamericanos tengan derecho a elegir entre permanecer en sus lugares de origen o migrar hacia otros países dentro o fuera de América Central, es conciliar los procesos de modernización e integración económica con una distribución más equitativa de los beneficios del desarrollo, ampliando las oportunidades de trabajo y el acceso a condiciones de vida digna para todos.

Key Words: migración / América Central / emigración / inmigración / integración.

주제어: 중미(중앙아메리카)/ 이주 / 이민 / 통합 / 인권

I. 들어가는 말

라틴아메리카는 애초부터 이민의 대륙이었다. ‘인디오’의 아메

* 부산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리카에서 ‘라틴’적인 아메리카로의 전환은 유럽인의 이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유럽의 백인들이 새로운 대륙으로 밀려들어오면서 나타난 것은 원주민(과)의 혼혈, 추방, 몰살이었다. 또 이와 거의 동시대적으로 또 다른 색깔의 사람들이 머나먼 아프리카로부터 수입되기 시작하였다. 이로서 라틴아메리카는 백인, 인디오, 흑인 그리고 그들 간의 혼혈인 메스티조(mestizo 백인과 원주민), 물라토(mulato 백인과 흑인), 삼보(zambo 흑인과 원주민)가 총천연색의 인종 스펙트럼을 그려내는 대륙이 되었다.

이러한 라틴아메리카의 이주 과정을 역사적으로는 크게 삼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시대는 해외이민의 시대이다. 아메리카 대륙 이외의 곳, 특히 유럽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온 시기이다. 이 시기 이민은 주로 식민지-본국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졌고 현재의 인종 구성 및 인구 구조를 형성하는 바탕이 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1930-70년대인데, 이 시기는 중남미 국가간의 이주의 시대였다. 이주는 인접국의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졌고 이러한 이주 유형은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현상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주변국가의 이민을 받아들이는 수민국은 아르헨티나와 코스타리카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다. 오늘날은 역외이주의 시대이다. 70년대부터 시작된 역외이주는 역내이민의 정체와 해외이민 유입의 감소와 함께 오늘날 라틴아메리카 이민현상을 설명하는 주요한 유형이다. 역외이주의 대상은 미국, 캐나다, 호주, 스페인 등의 국가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CEPAL et al. 2002a, 9-10).

중미지역은 이러한 추세와 경향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곳이다. 지리-문화적으로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미 국

가들간의 이민이 감소하고, 중미에서 멕시코로, 다시 미국으로 향하는 지역밖으로의 이동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미지역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이민의 성격과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이민을 추동시키는 동기와 과정이 해당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에 중미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게다가 이민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의 관계이기에 필연적으로 간(間)국가적 성격을 갖게 되고 그래서 중미지역의 이민/이주문제는 중미를 하나로 단위로 하는 협력 내지는 갈등의 양태를 이해하는 단초이기도 한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라틴아메리카의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중미지역을 개별의 단위로 하는 이민, 특히 이 지역의 국제 이민 현상을 중미지역内外의 연구기관과 비정부기구, 국제금융기구에서 중요한 분석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이 문제에 관심이 증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을 언급하자면 우선, 국가간 이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를 세계화의 특징적 현상으로 이해하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중미의 이민, 특히 미국으로의 이민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아울러 고국 송금과 같이 이민자가 본국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중미 지역의 역내·외 이민의 배경과 특징적 성격을 살펴보고 중미지역에서 역내이민의 중심국 역할을 하고 있는 코스타리카의 경우와 미국내의 중미인구를 사회인구학적 입장에서 고찰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민정책의 국가간 조정과 합의를 위한 집단적-지역적 시도와 노력들을 살펴봄으로서 중미지역에서 이민-발전-통합이 갖는 문제와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중미 이주의 소사(小史)

1. 지역적 개관

우리가 흔히 하나로 뭉뚱그려 얘기하는 중미, 즉 중앙아메리카는 실은 다양하고 복수적인 모습을 가진 지역이다.

표에서처럼 우선 중미의 인구구성은 제각각이다. 과테말라에서 파나마까지 7개국 인구는 총 3.600 만명인데 이는 라틴아메리카 총인구의 7%에 불과한 수치이다. 국가별로는 과테말라 31%, 온두라스 18%, 엘살바도르 17%, 니카라과 14%, 코스타리카 11%, 파나마 8%, 벨리스는 1% 순이다.

<표 1> 2000년 중미 경제·사회지표

구 분	벨리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중미
인구(천명)	226	4.023	6.276	11.385	6.485	5.071	2.856	36.332
면적(km ²)	22.923	49.960	19.892	109.063	112.302	126.460	72.213	512.813
인구밀도 (명/km ²)	9.9	80.5	316	104	57.7	40.1	39.5	71
국내총생산 (백만달러)	558	14.257	10.689	17.163	4.366	2.327	9.178	58.538
성장률 (1990-1999)	3.8	5.1	4.5	4.2	3	3.3	4.7	4.1
일인당생산 (달러)	2470	3.544	1.703	1.507	673	459	3.214	1.612
빈곤인구(%)	-	20	50	61	80	70	30	56
도시인구(%)	48	59	60	40	53	56	56	51

자료: 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 중남미경제연감, 2001, 2002, 칠레.

역사적으로도 모두 같지 않다. 중미 5개국은 스페인으로부터 비

늦은 시기에 독립하였으나 파나마는 콜롬비아로부터 그보다 거의 1세기나 늦게 독립하였다. 벨리스는 더욱 대조적이다. 벨리스는 스페인보다는 영국과 관계가 깊고, 다른 중남미 국가와는 달리 최근에 독립을 얻었고, 주변국보다는 카리브와 더 긴밀하다.

총인구와 인구성장도 다양하다. 파나마의 인구증가율은 2%이내인 반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는 2.7%의 높은 출산율을 보인다. 중미 전체로 볼 때 젊은 인구가 많으며 인구증가율은 높은 편이다(CEPAL et al. 2002, 12). 엘살바도르는 평방킬로미터당 300명 이상의 높은 인구밀도를 보이는 반면 벨리스는 10명 미만으로 인구밀도는 매우 낮다. 중미는 평균적으로 볼 때 농촌과 도시간의 인구분포는 절반 정도로 비슷하다. 남미지역이 도시인구가 많지만 중미 평균은 도시인구가 약 51%이다. 그러나 코스타리카와 엘살바도르는 도시인구가 많고 벨리스와 과테말라는 농촌인구 더 많아 이 또한 국가마다 다르다.

경제-사회적으로 볼 때도 중미는 단일하지 않다. 중미각국의 총생산은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에 집중되어 있고, 일인당 소득도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다.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의 일인당 생산은 3천 달러 이상이나 온두라스와 니카라과는 천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인당 소득의 중미평균은 라틴아메리카 평균보다 낮다. 중미에서의 빈곤문제는 전반적으로 심각한데 코스타리카와 파나마를 제외하고 빈곤인구는 전체인구의 50%이상이다. 코스타리카와 파나마를 제외하고 중앙아메리카 국가의 경제-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인종구성에서도 과테말라는 원주민 인구가 다수이지만 다른 나라들은 메스티조가 주인종이며 코스타리카는 백인인구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이처럼 중미각국은 경제-사회적으로 규모나 조건 등이 매우 다양하여 삶의 양식이나 방법도 천양지차이다. 따라서 생활 공간의 변동을 전제로 하는 이주의 양태 역시 복잡하고 다중적일 수밖에 없다.

2. 이주의 사적전개

실제로 중미에서 이민의 역사는 이곳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던 때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본격적인 이주는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의 이민은 주로 국가내의 이주로 대부분이 변경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었다. 즉, 당시 이민은 곧 식민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인구가 증대하고 식민할만한 공간이 사라져 국내이주가 정체되면서 국가간 그리고 역외로의 이주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1970년대 이전까지 중미의 국제 이주/이민은 수출농업에서 요구하는 노동력의 필요에 부응하는 인접국간의 역내이주가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정착이민이 아닌 일시이주의 성격이 강했고 당연히 남성위주였다. 20세기 초부터 코스타리카의 바나나 농업이 발전하여 니카라과인들의 이주가 시작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중미 전체적으로는 커피 농업 지역으로 이주가 생겨났다. 이러한 형태의 이주가 수십년 동안 계속되었고 그래서 국경이란 오늘날과 같은 ‘간국가적’이지 않았고 단순한 행정단위의 경계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았다. 노동자와 고용주는 국적에 크게 구애받지 않았고 단지 필요한 노동력을 요구하고 공급하는 것일 뿐이었다. 이러한 이주 유형은 오늘날에도 나타난다. 커피 수확기에 과테말라인들이

멕시코 치아파스로 이주하는 것과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와 벨리스, 니カラ과와 코스타리카, 파나마와 코스타리카 국경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주 노동이 있다 (Maguid 1999, 12).

노동력의 수급에 기초한 이주 메카니즘은 당시의 정치-경제적 상황과도 유관하게 작동하였다. 2차대전이후의 세계는 미소를 주축으로 한 양극체제로 재편되었고 중남미에서 반공을 내세우는 모든 정권은 미국의 지지를 획득하였다. 코스타리카 정도를 제외하고 중미에서도 반공을 내세운 친미 권위주의 정권이 성립되었다. 경제적으로는 50년대부터 중미의 세계경제 편입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그것의 결과는 주 산업인 농업의 자본주의화·근대화였다. 농업의 근대화는 유감스럽게도 대토지소유제에 기초하는 체제였다. 따라서 중미각국에서 이주는 농촌에서 도시로 향하였고 이는 빈곤 벨트를 도시주변에 위치시켰다. 변경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땅과 숲을 착취하였고 때론 원주민 공동체에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과테말라에서 이런 이주의 방향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코스타리카는 중앙에서 양쪽 해안지방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동시에 엘살바도르에서 온두라스로 그리고 과테말라/엘살바도르에서 벨리스로 향하는 이주 패턴을 만들어냈다(Alberto , 6-7).

70년대 들어서는 중미각국에서 진행된 산업화와 근대화의 산물로서 도시에서 학생운동이나 해방신학과 같은 움직임들이 반독재 게릴라 투쟁의 배아가 되었고 농촌지역에서는 농지개혁을 요구하는 저항의 움직임들이 점증하였다. 이에 대한 집권 엘리트의 반응은 무력을 동원한 강제적 진압이었다.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에서

는 게다가 우익준군사집단들의 테러까지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정치난민을 포함하여 과테말라/엘살바도르에서 멕시코로, 니카라과에서 코스타리카로의 대량 이주를 촉발시켰다. 1979년 산디니스타 혁명이 성공하여 중미의 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니카라과와 나머지 중미국가간의 이념이 양극화되었고 미국의 이른바 저강도정책으로 니카라과의 혼란은 가속화되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코스타리카와 온두拉斯로 이주하였고 중산층은 미국과 코스타리카로 떠났다. 따라서 80년대 중미의 이주는 인구의 증가, 정치적 폭력, 내전, 경제구조조정 등의 복합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拉斯에서는 미국, 멕시코, 벨리스를 향하였고 니카라과인들은 코스타리카로 집중하였다. 국내이주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주로 미개척지로 이주하여 농사를 짓는 것이었는데 이 때문에 80년대 말 삼림이 크게 줄어들었다 (Alberto 2002, 10-11).

대내외적 상황이 90년대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중미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미국내 강경파의 입장은 1987년 이란-콘트라스 스캔들로 크게 약화되었고 동구권의 해체로 그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중미에선 1986년 과테말라 내전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는 비니시오 세레소(Vinicio Cerezo)가 대통령이 되었고 이듬해에는 중미 모든 국가가 중미평화계획에 서명하여 중미지역의 정치적 안정이 확보될 계기가 마련되었다. 1989, 1992, 1996년에는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에서 내전이 종결되었다. 이로서 형식상 민주주의는 회복되었고 자신의 나라를 떠났던 많은 이주자들이 귀국하였다.

이제 중미에서 전쟁 대신 발전이 자리하리라 생각했으나 이런

희망과 기대는 충족되지 못했다. 아직도 중미에서는 ‘이민가지 않 을 권리’가 완전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동반하여 나타난 것이 역외이주의 증가이다. 내란이 격화되기 전인 1970년대부터 나타난 미국을 향하는 역외이주는 1990년 들어 중미 전체인구의 5%에 이르렀다. 특히 엘살바도르의 경우에는 전체인구의 10%정도가 중미가 아닌 외국으로 이주해 있는 상태이다(OIM et al. 2004, 6).

최근 중미는 반복되는 경제위기, 정치적 혼란, 중미국가간 사회-경제적 격차의 확대, 미국과의 격차의 확대 등으로 이출민이 증가하고 있다. 즉, 중미 이주의 경향은 역외이주가 증가하고 역내이주는 감소하는 것이다. 1970년대 중미에서 일어나는 이주의 절반이 역내이주였으나 1990년 이 수치는 7.5%로 급감하였다. 대신 역외이주는 늘어났다. 니카라과(68%)만 제외하고 중미 모든 나라의 미국 이주는 전체 이주의 70%를 넘는 상황이다.

III. 중미각국 이민 추세의 현황

<표 2> 1980년 중미각국 이출입민 통계

수민국 \ 이민국	벨리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계
벨리스	-	27	1.127	3.013	1.576	52	24	5.819
코스타리카	-	-	8.748	1.431	1.574	45.918	4.794	62.465
엘살바도르	-	-	-	-	-	-	-	-
파테말라	832	733	16.805	-	5.326	2.133	235	26.064
온두라스	-	-	-	-	-	-	-	-
니카라과	-	-	-	-	-	-	-	-
파나마	135	3.359	1.791	317	464	3.128	-	9.194
계	967	4.119	28.471	4.761	8.940	51.231	5.053	103.542

자료: CEPAL et al. 2002b, 24

<표 3> 1990년 중미각국 이출입민 통계

이민국 수민국	벨리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테말라	온두拉斯	니카라과	파나마	계
벨리스	-	-	5.658	10.696	2.337	-	-	18.691
코스타리카	-	-	-	-	-	-	-	-
엘살바도르	134	856	-	4.524	8.666	2.139	308	16.627
파테말라	528	737	14.425	-	4.634	3.621	245	24.190
온두拉斯	200	557	7.733	3.050	-	15.149	178	26.867
니카라과	48	4.727	2.136	900	9.473	-	351	17.635
파나마	63	3.828	2.340	367	623	4.447	-	11.668
계	973	10.705	32.292	19.537	25.733	25.356	1.082	115.678

자료: CEPAL et al. 2002b, 25.

<표 4> 2000년 중미 이출입민 통계

이민국 수민국	벨리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테말라	온두拉斯	니카라과	파나마	계
코스타리카	104	-	8.714	1.996	2.946	226.374	10.270	250.404
미국	59.000	77.000	765.000	327.000	250.000	245.000	69.000	1,792.000
멕시코	1.070	2.391	5.786	29.156	4.203	2.514	1.440	46.560
파나마	87	4.565	1.996	590	823	4.833	-	12.894

자료: CEPAL et al. 2002b, 31.

중미지역을 총괄하여 이민의 성격을 얘기하는 것은 힘들다. 왜냐면 국가마다, 지역마다,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민자들의 학력, 출신, 성별, 나이, 직업 등 도 케이스마다 매우 상이하다. 따라서 이민자의 구성이나 특성을 알기 위해서도 국가별 고찰이 필요하다.

통계에 의하면 중미국가 중 벨리스, 코스타리카, 파나마만이 나가는 이민보다 들어오는 이민이 많은 나라이다. 1990년과 2000년을 비교할 때 벨리스의 전체인구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8%에서 14.8%로 증가하였고 코스타리카는 3.7%에서 7.8%로, 파

나마는 2.6%에서 2.9%로 늘어났다(OIM et al. 2004, 7-8). 다른 중 미국가들에서는 이출민이 이입민보다 많아 이주자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우선 벨리스를 살펴보면, 벨리스로 오는 이민자의 대부분은 중 미출신이다. 이들은 주로 농촌지역에 정착하며 학력은 대부분 초 등 졸업 이하로 낮은 편이며 1차 또는 3차 산업에 종사한다. 반면 벨리스의 이출민은 젊은 편이며 초등교육 이상의 학력자들이며 이들은 주로 미국을 향한다. 벨리스 정부의 이민정책은 일반적으로 이민과 그들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인구 적 측면의 고려는 적은 편이다. 따라서 이입민의 쿼터에 대한 기준이 있긴 하지만 특정기술을 가진 이민자의 기준이나 이민자를 위한 정착촌 건설과 같은 고려들이 더 중요하게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CEPAL et al. 2002a, 35). 벨리스의 중미 출신 이민자중 과테말라 출신이 절반정도를 차지한다. 전체인구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던 아프리카계인구는 현재는 절반이하로 감소하였고 반면 과테말라의 메스티조(또는 인디오)가 지속적으로 들어와 벨리스의 인종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OIM et al. 2004, 7-8).

코스타리카는 중미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민국이다. 전체인구의 7.8%가 외국인이다. 중미로부터의 이민자는 주로 학력이 낮고(4년 이하가 다수) 농업에 종사한다. 중미아외의 지역에서 온 이민자는 10년 이상의 고학력자가 다수이고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은퇴자가 많은 편이다. 니カラ과에서 코스타리카로의 이주하는 사람들은 주로 바나나와 커피 농장에서 일한다. 니カラ과와 코스타리카간의 이주는 정착형, 순환형, 조합형이 있는데 정착형(permanentes) 이주는 주로 니カラ과 내륙주에서 온 사람들이고

순환형(circular)이민자들은 국경에 인접한 지역 출신이 많다. 이들은 주로 가난(70%)과 실업(53%)과 같은 경제적 이유로 코스타리카로 이주를 결정한다. 양국 농촌 임금의 격차(코스타리카 201달러 니카라과 59달러)가 이를 잘 설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CEPAL et al. 2002a, 70 & 71). 코스타리카로의 이민은 니카라과만이 일이 아니다. 중미지역 역내이주의 70% 이상이 코스타리카행을 선택한다. 다른 중미국가들로 비교할 때 특이한 점은 미국인이 많다는 것이다. 84년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의 6%정도가 미국인이다(OIM et al. 2003, 10).

일자리와 같은 사회경제적 조건의 향상과 정치적 안정 등으로 전통-역사적으로 코스타리카의 이출민은 많지 않으나 이민자의 다수는 여자들이며 이들은 주로 전문직 종사자로 미국으로 향한다(CEPAL et al. 2002a, 71).

파나마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20%가 중미, 20%는 콜롬비아, 60% 정도는 기타 국가출신인데 기타 국가에는 중국과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이 많다(OIM et al. 2004, 8; OIM et al. 2003,10). 멕시코와 미국에서 온 이민자들은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며 전문직, 사무직 종사자가 많다. 콜롬비아, 중국, 도미니카의 이민자들은 상업과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며 중미출신 이민자는 장인, 전문직, 노동직이 많다. 중미이민자중 여성들은 3차 산업에 많고 남성들은 1,2차 산업에 많다(CEPAL et al. 2002a, 237).

역사적으로 파나마는 역내국가들보다는 미국과 정치-경제-문화적으로 더 긴밀하였다. 그래서 파나마 이민은 미국행이 많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다. 특히 파나마인들은 미국에서 대학교육을 많이 받는다. 파나마 원주민들은 코스타리카로 이주하여 커피 수확

등 농업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들은 주로 가족들이 함께 그룹을 지어 이동한다. 이외에도 대학이나 대학원 공부를 하기 위해 코스타리카로 떠나는 유학생이 있다(CEPAL et al. 2002a, 237).

엘살바도르의 이입민은 주로 젊고, 여성이 많은 편이다. 중미 외에서 온 이민자들이 일반적으로 학력이 더 높다. 여기에는 내란이 종결되면서 (외국인 전문가들이) 국제기구나 대기업에 근무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은 주로 미국(87.2%) 행을 선택하며 전에는 여자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남자가 더 많은 추세이다. 주변국인 온두라스로 가는 이민자는 일반적으로 학력이 낮으며 농업에 종사한다(CEPAL et al. 2002a, 96-97). 엘살바도르 내에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소수의 니카라과인이 남아있다.

과테말라 이민자들은 멕시코(17%), 미국(11%), 벨리스(10%) 순으로 많은데 이들의 학력은 비교적 높은 편(중등교육)이다. 과테말라 이민자들은 주로 서비스, 제조업, 상업, 농업 순으로 종사한다. 과테말라로 들어오는 이입민은 그리 많지 않지만 인접국인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미국, 멕시코, 니카라과 순으로 이민을 오는데 이는 전체인구의 0.4%에 불과하다.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이민자의 학력은 낮고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이민자들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CEPAL et al. 2002a, 139 &140).

니카라과는 코스타리카와 미국으로 이민이 많다. 연령층은 경제 활동인구에 집중되어 있다.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미국 이민이 많고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등 인접국 이민자의 학력은 낮은 편이다. 이들은 주로 서비스업과 상업에 종사하며 인접국 이민자는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다(CEPAL et al. 2002a, 199).

IV. 이주의 사회-인구학적 특징과 국제적 범주

중미의 국제이민에서 역내이주의 중심국은 코스타리카이며 역외이주의 대상국은 미국이다. 따라서 이 나라들에 거주하는 중미인들의 경제-사회-인구적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중미이민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의미하다.

1. 코스타리카의 니카라과이민

니카라과에서 코스타리카로의 국경이민은 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수출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일시적 형태의 노동자로 특징지을 수 있다. 니카라과 농촌의 만성적 실업은 코스타리카로의 이주를 만성화시켰고 이것이 현재는 커피-바나나 농장의 순환적 노동력 공급 시스템으로 정착되었다. 이 시스템은 양국 국경지역에서 인구를 이동시키는 가장 큰 동력이다. 이주의 역사성과 일시이민자의 정착 그리고 혈연, 지연, 집단의 공동체 의식 등으로 양국 국경 지역의 문화적 동질성은 더 견고해지고 있다(Maguid 1999, 23).

양국간 지정학적 경계는 현실적으로 중요시되지 않고 국경의 통과는 비공식적으로 더 수월해지고 경제-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은 더 강해지고 있다. 경제안정과 정치민주화 그리고 최근의 중미 통합과정은 국경 고유의 경제적 발전을 보장하고 환경문제에 더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합의와 협의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이로 인해 국가간 노력과 협의, 이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동정책을 수립할 목적의 민간과 NGO 차원의 운동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국경지역이주와 함께 코스타리카의 노동시장과 경제여건의 유리함 때문에 정착형 이주가 새로운 패턴으로 굳어지고 있다.

80년대 코스타리타는 주변국의 난민들을 수용하는 문제에 직면 했었는데 내전이 종료된 현재는 이민자 문제에 직면해 있다. 코스타리카의 이민-외국인 법에 의하면, '이주 노동자'(trabajador migrante)는 체재와 일시노동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1996-98년 동안 노동부와 이민-외국인국은 노동허가증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는 국내 노동력이 부족한 멜론, 오렌지, 커피, 바나나 등의 농작물 수확과 건설 현장에서 일 할 니카라과인들에게 합법적인 체류를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불법 이민자를 줄이고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주 노동력을 필요한 분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Maguid 1999, 24).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카라과 불법 이주자 문제는 메스컴과 여론에 의해 항상 제기되는 문제이다. 이들이 코스타리카 경제 발전에 공헌한 측면도 있지만, 코스타리카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범죄와 빈곤을 확산시키고, 사회제도와 서비스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반외국인 정서 또한 만만치 않다. 이러한 정서는 니카라과 불법 이민자가 증가하면 할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불법이민자의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다. 왜냐면 불법이기 때문에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게다가 반외국인정서가 강하면 불법이민자 사면이 있다하더라도 사면 신청을 주저하게 되어 통계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게 되게 때문이다. 또 많은 나라들에서 인구 센서스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와 조사의 진실성 부족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코스타리카내의 니카라과인은 84년 4만 6천 명에서 97년 9만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현재 코스타리카에는 니카라과-엘살바도르-파나마 순으로 중미출신 외국인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니카라과 출신은 전체외국인의 52%에서 73%로 증가하였다. 이들의 약 40% 정도가 수도인 산호세에 집중되어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84년 42%에서 97년 21%로 감소하였다. 이전에는 남성이 많았으나 97년 통계에 의하면 여성이 더 많아졌고 농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주요 경제 활동 분야가 변하였다. 84년 4년 이하 학력자가 절반정도를 차지했으나 97년 통계에는 26%로 감소해 코스타리카의 니카라과 이민자의 학력이 점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Maguid 1999, 30-33).

코스타리카인들과 니카라과 이민자들과 비교할 때, 평균학력은 7.2년 대 6.3년이며 중등교육이상 교육자는 25% 대 17%로 코스타리카인이 높다. 극빈층과 빈곤층을 합한 비율은 24% 대 26%로 니카라과이민자가 높고 니카라과 이주민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Upala 지역의 경우, 상수도가 없는 집은 33%대 51%, 무학자는 19% 대 35%로 니카라과인이 내국인보다 열악하며 시간당 평균 임금도 니카라과인이 남성 113 콜론, 여성 98 콜론인 반면 코스타리카인은 158 콜론과 137 콜론으로 임금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Maguid 1999, 30-33).

2. 미국의 중미이민

중남미의 미국 이민은 60년대부터 시작되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멕시코와 중미 국

가들의 미국 이주는 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들 나라들은 미국의 이민정책에 매우 민감하다.

중미에서의 미국으로의 이주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970-1980년 기간 중미인의 미국이주는 3배 정도 증가했고 다음 10년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3배 정도 늘어났다. 1990-2000년 사이에도 이 숫자는 거의 배로 증가했다. 미국 전체 이민자중 라틴아메리카계 이민자는 51%인데 이를 100으로 볼 때 출신지역별로 살펴보면 멕시코 54, 카리브 19, 중미 13.5, 남미 13이다. 2000년 통계를 기준으로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拉斯, 니카라과, 파나마, 코스타리카, 벨리스 순으로 미국으로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OIM et al. 2004, 10 & 12).

<표 5> 중미각국의 미국이민자수

구분	1970	1980	1990	2000
코스타리카	16.691	29.639	43.530	77.000
엘살바도르	15.717	94.447	465.433	765.000
과테말라	17.356	63.073	225.739	327.000
온두拉斯	27.978	39.154	108.923	250.000
니카라과	16.125	44.166	168.659	245.000
파나마	20.046	60.740	85.737	69.000
계	113.913	331.219	1.098.021	1.733.000

자료: 1970,1980,1990 통계는 (Maguid 1999, 34) 2000통계는 Uso de los datos,: 31.

중미 전체 이민자의 약 80%는 미국으로 가며 그 숫자는 매년 크게 증가해 왔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 온두拉斯 등은 미국으로 많은 이민자가 간다. 다른 중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코스타리카와 파나마는 미국 이주는 그리 많지 않다.

3. 이민정책의 합의와 조정

경제적 공간의 지구촌화와 지역통합 과정은 안보와 통제에 기초한 기존의 이민정책의 포커스를 바꿔야만 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제 이주와 이민을 통합과 발전을 동시에 가능케 하는 변수로서 인정하는 새로운 시각이 요구된다.

주지하는 바, 중남미에는 메르코수르, 안데스, 중미의 지역통합 움직임이 있다. 특히 이들 통합 과정에서는 자유무역과 같은 경제적 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인적이동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미의 경우, 국가별 차이가 다른 지역보다 더 적고 문화-인종적으로 비교적 더 동질적이기 때문에 통합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쉽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민이 내포하고 있는 잠재적 문제들은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인구/이민정책은 발전이나 성장과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민 정책은 상호적이기 때문에 집단적 노력과 행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민정책은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노동 권리 등 인권적 범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노동정책과 유리될 수 없다. 현재 중남미의 이민정책은 이러한 요소를 완비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국가의 법이나 규정이 이를 저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미에서 인간의 이동을 보장하고 이주문제를 다룰 지역적 협의를 조직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カラ과 간에 CA4 조치를 통해 무비자 입국을 합의하기도 했으나 1999년 과테말라가 엘살바도르인의 입국과 체재를 제한하기도 했는데 이는 자국을 통한 멕시코/미국 밀입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Maguid 1999, 63).

오늘날 중미국가간의 이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미국가간의 공식적인 협의만이 아니라 민간차원의 노력과 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착되고 있다.

1) 국가간 이민정책의 조정과 합의

1996년 멕시코의 푸에블라(puebla)에서 멕시코와 중미국가가 참여하는 제 1 회 지역이민회의(Conferencia Regional sobre Migracion, CRM, Puebla Process 라고도 함)가 열렸다. 이 회의는 이민문제를 건설적인 입장에서 협의하고 이에 대한 지역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발전시켜 이듬해에는 파나마에 모여 기술-운영체로 지역이민협의그룹을 조직하기로 합의하였다. 유엔 산하의 국제이주기구(IOM)는 CRM 참여국가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제공하고 있다(Maguid 1999, 64-65).

중미지역의 제반 문제를 논의하는 중미통합기구(Sistema de Integración Centro-americana)는 이민 관련 문제를 국가간 협정에서 논의되도록 추진하며 이민국장회의체(Organización de Directores Generales de Migración)를 지원하고 있다.

1990년 이민국장회의가 코스타리카에서 열렸는데 여기서 중미이주기구(Organización Centroamericana de Migración, OCAM)가 창설되었다. IOM의 지원을 받고 있는 OCAM의 목표는 상설 포럼을 만드는 것인데 이는 중미의 이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중미통합과 단일성을 유지하면서 국가간 이동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결정과 행동을 하기 위한 것이다. OCAM의 활동의 결과로 현재 중미각국은 동일한 입출국카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

다(Maguid 1999, 64-65).

국가간 정상회담에서도 이주자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80년대 말에는 난민들의 보호와 지원에 국가간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후에는 불법입국 이주자와 강제로 송환되는 이주자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었다. 최근 중미정상회담과 같은 국제회의에서는 역내이주 추이와 이주민의 인권 보호 등이 주요 관심사로 다루어지고 있다.

2) 이민문제관련 비정부기구들

80년대 비정부기구들은 주로 이주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오늘날 비정부기구들은 이민국에서는 귀국자 적응 프로그램이나 고향에서 추방된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스타리카와 같은 수민국에서는 니카라과 이민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코스타리카 사회로의 통합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에서 비정부기구들은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강제 출국되어 돌아온 불법이민자들을 돋고 있다(Maguid 1999, 66).

1998년 캐나다에서 열렸던 CRM에서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 중미국가들이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는데 주 내용은 이주와 발전간의 상호 관계를 신중히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주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행동, 특히 여성에 대한 보호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며, 비정부기구들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것이었다.

3) 허리케인 Mitch와 코스타리카의 불법이주자 사면법

1998년 12월 9일 코스타리카 정부는 11월 9일 이전에 들어와 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미출신 불법이민자에 대한 사면령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불법입국자들은 자신의 입국조건을 합법화하여 강제추방을 피하게 되었다. 이 조치는 그 해 11월 엘살바도르에서 있었던 중미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코스타리카가 허리케인 미치로 인한 국제적 재건노력에 동참한다는 연대감의 발로로 이루어진 것이었다(Maguid 1999, 67).

이민자 사면은 6개월 동안 효력을 가지며 이 조치는 1999년 2월부터 실행되었다. 코스타리카 정부의 이 조치는 이전에는 내란으로 피해를 당한 나라의, 이번에는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나라의 이민자를 수용하는 개방정책이 중미 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 더 많은 불법이민자들이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반대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타리카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림으로서 이주자 인권의 보장과 중미국가간 연대가 강화되는 계기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

V. 결 론

중미 이주의 특징은 역내이주에서 역외이주로의 전환, 미국이민의 지속적 증가, 고국송금의 증가와 중요성, 불법이민의 증가, 불법이민범죄와 브로커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코스타리카는 중미에서 역내이주의 중심국 역할을 수행하고, 거의 모든 중미 국가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향한 이주의 물결은 더욱 커지고 있다. 중미의 경우, 이민자의 네트워크와 본국 송금은 수출이나 총생산과 비교

할 때 매우 큰 금액이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カラ과에서 송금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은 더욱 크다. 송금액의 대부분은 고향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지출된다.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이민이 특정형태의 인권침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본인과 가족의 신체나 재산의 보호 부재나 노동할 기회의 박탈과 같은 문제를 갖게 되며 정치적 표현이나 참여의 제한/부족과 같은 정치권적 문제도 있으며 인종차별이나 종족차별과 같은 문화권적 문제를 갖게 된다 (CEPAL et al. 2002b, 96). 엘살바도르의 경우 이런 것들은 이민을 촉발시키는 요인이다. 외국에서 이민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인권문제도 있다. 특히 아이와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불법이주, 추방 등은 중미사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심각한 과제들이다.

이민은 이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인적자원의 손실이며 가정해체로 인한 사회 불안정의 요인이기도 하다. 또 이민자들이 돌아와도 나갈 때 보다는 적지만 그들의 재정착에 필요한 비용과 부적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더욱이 강제-집단 귀국일 경우, 본국사회로의 적응과 재편입의 문제는 사소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미국가들은 우선, 이민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중미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지속적이고 합의에 기초한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한다. 또 여기서는 시민사회와 비정부 민간기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반외국인주의와 이주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킬 수 있다.

아울러 이민현상과 그 변화에 대한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민문제를 이해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구통계를 제대로 실시해야 하며 또 그것은 국가간 협력 하에 동시에 실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중미의 여건은 아직 열악한 편이다. 또 입출국 기록의 정보화 역시 전무한 편이다. 따라서 중미이민정보시스템(Sistema de Información Migratoria Regional)의 구축이 시급하다(Maguid 1999, 68).

이와 함께 이민/영사 업무의 개선도 필요하다. 이민자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 제공시스템을 운영하고 이민관련 전문인력의 양성도 필수적이다(Maguid 1999, 69). 동시에 이민 정책에서 규제 강화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면 수민국의 규제와 감시 강화는 불법입국을 증가시키며 순환이민을 오히려 정착이주로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Villa and Jorge 2001, 10).

종국적으로 중미에서의 이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 살던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주하던지 하는 것을 자유롭게 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발전의 혜택을 지역간과 계층간에 골고루 분배되게 하는 통합과 균대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참고문헌

Cortés Ramos, Alberto(2002), *Tendencias migratorias en Centroamérica en la segunda mitad del siglo XX*, Congreso Latinoamericano de Ciencias Políticas, Salamanca, España.

CEPAL/Organización Internacional para las Migraciones/BID(2002a),
Informes nacionales sobre migración internacional en países de Centroamérica, Santiago de Chile.

Organización Internacional para las Migraciones/Proyecto Sistema de Información Estadística sobre las Migraciones en Centroamérica(2004), *Inmigración y emigración en Centroamérica a inicios del siglo XXI*, Costa Rica.

Maguid, Alicia M.(1999), *Gente en Movimiento: Dinámica y Característica de las migraciones internacionales en Centroamérica*, Costa Rica: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s)

Organización Internacional para las Migraciones/Proyecto Sistema de Información Estadística sobre las Migraciones en Centroamérica(2003), *Movimientos Internacionales a través de las Fronteras Centroamericanas: Síntesis Regional*, Costa Rica.

CEPAL/Organización Internacional para las Migraciones/BID(2002b),
Uso de los datos censales para un análisis comparativo de la migración internacional en Centroamérica, Santiago de Chile.

Villa, Miguel & Jorge Martínez(2001), *El mapa migratorio*

internacional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patrones, perfiles, repercusiones e incertidumbres, Santiago de Chile: CEPAL.

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 중남미경제연감, 칠레, 2001, 2002.

논문투고일자: 2004년 11월 1일